



“5·18 왜곡 규탄한다”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300여명이 29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방 규탄대회’를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5·18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한열·강경대 등 민주열사 41명 잠든 옛 5·18묘지 ‘민주화 성지’로 새 단장

광주시 일반묘지 이전, 전시실·기념관 등 건립

이한열·이철규·강경대·김남주 등 민족민주열사 41명이 잠든 망월묘지 제3묘역(옛 5·18 묘지)이 민주화 성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제3묘역에 일반묘지를 이전시키고 민족민주열사들만 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는 한편 그 면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2014년 4월 완공 목표로 제3 묘역 인근에 16억5000만원을 들여 전시실과 추모공간, 휴게실 등을 갖춘 지상 1층의 민족민주열사 기념관도 건립하기로 했다. 제3묘역은 1980년 5월 ‘무자비한 살상’을 통해 시민군을 제압한 계엄군이 이르는 모르는 시신들을 청소차 등으로 싣고 와 구덩이를 파고 묻은 가슴아픈 역사를 담고있는 곳이다. ‘폭도굴’, ‘반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열사들의 ‘억울한 장례’가 치러진 현장이기도 하다. 이후 이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이한열·이철규·강경대 등 민족민주열사들과 함께 묻혀 있다가 지난 1997년 5·18국립묘지로 이장됐다. 현재 제3묘역에는 민족민주열사 41기, 5·18유공자 가분묘 149기, 일반매장 225기, 개장분묘(파분묘)·일장 후 비어있는 묘지) 74기 등 총 489기만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일단 제3묘역내 개장분묘 74기에 새로운 흙으로 바뀌었고, 민주열사 묘지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나머지 일반매장 묘지도 이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남상철 사회복지과 시설담당은 “제3묘역은 민족민주열사들이 묻혀있음에도, 그동안 사적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개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망월묘지는 제1묘역에서부터 제9묘역까지 조성돼 4만1094기를 안치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새지도부 혁신 드라이브·역량 결집 부진
安 세력화에 휘청...재보선·지방선거 위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비전 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내부 역량 결집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과거의 투쟁력마저 실종된 상황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역량 결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연 의원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의원들이 외유를 떠날 때나”며 “지도부가 나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당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파이팅도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하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의 존재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비전 제시도 못하고 있다. 분위기는 잠아가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의 핵심으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천 개혁이 꼽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공천제도 혁신위원장에 조경태 최고위원이 임명됐지만 아직 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다. 다음달 초에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 진영은 독자세력화를 공식화하며 신당 창

류현진 첫 완봉승
2안타 무사사구...6승 ▶14편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그 험한 5·18 참상 다 견디고... 옛 도청 앞 회화나무 끝내 고사

작년 8월 태풍에 쓰러져...광주시 후계목 식수 추진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지켜본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수령 200년·높이 10m·둘레 1m)가 고사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불라벤 태풍에 쓰러져 다시 심어진 옛도청 회화나무가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고사했다. 3~4개의 나뭇가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싹을 틔울 가능성이 없어 고사 판정을 받았다. 이 회화나무는 태풍에 쓰러질 당시 뿌리의 80%가 없어졌을 정도로 훼손이 심했지만 광주시는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나무살리기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회화나무의 고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화나무 바로 옆에 아스팔트 길이 조성되고, 그 아래 지하상가가 들어서면서 뿌리가 갇게 내리지 못해 태풍 등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도당과 영양제, 수분 증발 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회화나무 살리기에 노력해온 임은라 광주시 도시녹화담당은 “여러 직원들이 밤낮없이 돌봐왔는데 고사돼 안타깝다”며 “나무의 상징성이 큰 만큼 5·18단체 등과 협의해 후속 후계목(같은 장소에 같은 수종을 심는 것) 지정과 고사목의 보존 문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도청 회화나무를 둘러싸고 초소가 있었고, 광주시민들이 초소 아래에서 계엄군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현대백화점

오랜 시간 보내주신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부로 현대백화점 광주점의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광주지역 여러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15년간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임직원 일동